



물 한 손가락으로 휴대폰 충전하기

파워트렉 물 충전기 물을 넣어 쓰는 인스턴트 발전기

파워트렉은 물을 분해해 얻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물 충전기다. 50년 동안 알칼리 금속을 연구한 화학 교수가 물에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실리콘(Silicides)을 개발했고, 스웨덴의 연료전지 회사인 myFC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 아웃도어 충전기를 제작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충전기(파워트렉 모바일 차저)에 연료전지(파워팩)를 넣고 물탱크에 한 손가락 정도의 물을 넣는다. 충전기 뚜껑을 닫고 USB 포트에

휴대폰 등의 기기를 연결하면 된다. 충전기에는 1500mA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미리 발전해두었다가 재빨리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파워팩 하나가 제공하는 에너지는 4Wh로, 요즘 스마트폰의 대용량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기에는 모자라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비상용이니깐, 파워트렉의 가치는 일상에서가 아니라 서바이벌, 아웃도어, 등반, 오지 탐험, 항해 등의 단어와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파워팩은 건전지나 배터리처럼 자연 방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바이벌 마니아라면 잔뜩 사서 켜워둬도 무방한 제품이다. 올 상반기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 파워트렉 충전기는 229달러, 파워팩은 세 개에 12달러. powertrek.com

여기 소개하는 제품들은 콘셉트 또는 디자인 아이디어 단계에 있거나, 출시되지 않았거나, 출시되었지만 아직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물건들입니다(출시 예정은 모두 해외 기준, 앱 제외).

가장 최근의 화성 사진을 휴대폰으로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진을 보여주는 놀라운 개념의 앱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마스 이미지(Mars Image)는 화성 사진을, 그것도 흑백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라서 그런 것 같다.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 공터라고 해도 믿을 법한 사진을 흑백으로 보여준다. 본래 토양 성분과 물의 흔적을 찾는 것이 임무인 화성 탐사 로봇이 찍은 사진을 여과 없이 올려놓으니 흑백의 '모랫바닥 사진'이 끝도 없이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지금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편안하게 앉아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앱을 만든 NASA 화성 탐사팀의 연구원은 현재 화성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앱을 따로 제작 중이라고 한다. 무료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플라로이드 SC1630 스마트 카메라 즉석 사진은 안 나옵니다만



즉석 사진의 대명사였던 플라로이드는 회사가 망했지만 브랜드는 살아남은 대표적인 케이스(현재 PLR 이커머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플라로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처럼 생긴 콤팩트 카메라를 발표했다. 찍는 즉석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SC1630은 평범한 똑딱이다. 초점거리 36~108밀리미터의 광학 3배 줌렌즈와 1600만 화소의 CCD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플라로이드 디카를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내장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이런저런 앱과 게임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 기능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앱을 설치하면 그야말로 스마트한 똑딱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하게 여겨지는 배터리 용량, 2.5밀리미터 헤드폰 단자 등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불편함이 벌써부터 눈에 띈다. LCD 크기는 3.2인치, 4월경 출시 예정, 299달러. polaroid.com

센시스 나탈리아 스마트 고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HMD

나탈리아 역시 게임과 영화 감상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의 개인용 HMD(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정도로 받아들여지기에 조금 억울할 듯하다. 나탈리아의 요점은 별도의 연결이나 콘솔 없이 자체적인 운영체제(안드로이드 또는 윈도 임베디드)를 갖고 있는 헬멧이라는 것. 앞으로 나탈리아에 적합한 앱이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의 HMD가 영상 입력을 받아들여 사용자의 눈앞에 보여주지만 했던 일종의 모니터였다면, 나탈리아는 모니터처럼 않지만 PC의 모든 부품이 들어 있는 올인원 PC 같은 거다. 전방 카메라, 3D 영상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탑재한 나탈리아용의 앱 개발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존 HMD가 제공했던 가상현실에서 진일보한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과, 영화(마이내리티 리포트)의 톰 크루즈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움직여 조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겠다. 듀얼 OLED(1280x1024) 디스플레이와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3D 프로세서를 장착했다. 안드로이드 4.0 모델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smartgoggle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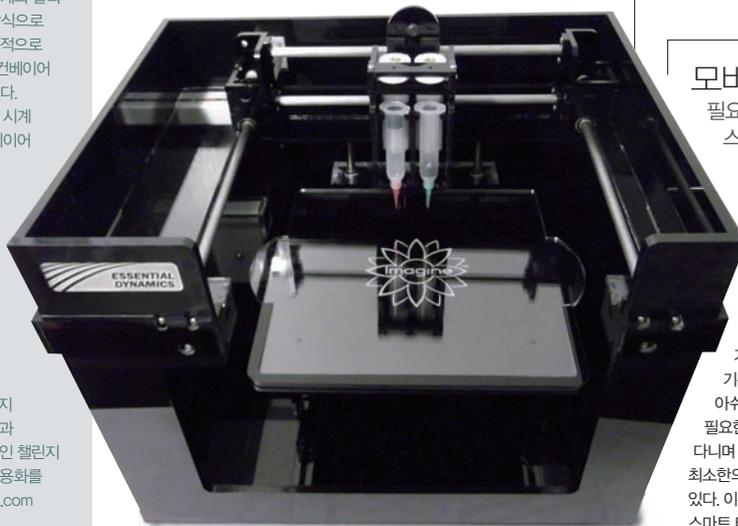


트랙스 MKII 시계 탱크처럼 강한 남자의 시간

이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 시계는 변기만큼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건이다. 한편으로는, "별별 희한한 시계도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디까지나 주류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마이너리티로 내려가면 시계 또한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게 사실이다. 시곗바늘과 숫자를 보여주는 뻔한 시계와 달리 그림이나 기호, 양(量)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특별한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도쿄플래시가 이번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한 콘셉트 모델을 선보였다. MKII는 숫자판이나 액정이 없는 대신 시계 양쪽으로 숫자가 새겨진 네 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며 시간을 표시한다. 이 제품은 도쿄플래시 디자인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피터라는 영국인이 제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외관에서 눈치챌 수 있었지만 강한 이미지의 남성적 시계를 만들기 위해 탱크의 캐터필러에서 모터프를 얻었다고 한다(이름도 탱크 제식명 같다). 규칙적으로 한 칸씩 둔중하게 철컹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어쩐지 탱크의 박력과 터프함과 함께 묵직함과 우아함도 보여준다. 도쿄플래시 디자인 챌린지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MKII의 실제 상용화를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tokyoflash.com

에센셜 다이내믹 3D 프린터 상상했던 모든 형태의 물건을 원하는 재료로

3D 프린터는 3D 형태의 그래픽 작업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혁신적 제품이다. 이런 물건에 '프린터'라는 다소 겸손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작동 원리가 프린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잉크 대신 용해된 고체를 사용해, 그래픽 작업을 0.03밀리미터 정도의 두께로 나누어 한 층씩 인쇄한다. 이렇게 켜켜이 쌓는 레이어가 바로 앞 레이어에 융해되거나 접촉되어 중국에는 입체를 이룬다. 사실 3D 프린팅 자체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요즘엔 자동차 회사에서 진흙을 깎아가며 클레이 모델을 만드는 대신 통째로 프린트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만큼 산업계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다. 최근 '가정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비교적(?) 저가인 프린터가 개발되어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에센셜 다이내믹은 주사통(Syringe: 사진 속의 주사기처럼 생긴 프린터 헤드)에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실리콘이나 액화 플라스틱은 물론 초콜릿이나 치즈, 심지어 육류나 생선 같은 음식으로도 작동 가능하다. 그걸로 뭘 만들어낼 것이냐가 관건일 뿐. 2995달러. essentialedynamics.net



페츨 나옴 헤드 랜턴 센서로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헤드 랜턴

'더 강한' 제품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지만, 실용적인 차원에서 산악용 헤드 랜턴은 사실 더 강한 빛이란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밝기가 개선됐다. 산악용 장비의 명가 페츨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했다. 페츨이 개발한 리액티브 라이팅 기술은 센서를 통해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양의 빛을 분산광과 집중광 두 종류로 출력한다. 예컨대 야간에 지도를 볼 때는 약한 분산광을, 고개를 숙이고 발밑에 주의하며 이동할 때는 강한 정도의 분산광을, 고개를 들고 멀리 있는 곳을 확인할 때는 강한 집중광을 쏜다. 조절 가능한 밝기의 폭은 7~355루멘. 딱 필요한 만큼의 밝기로 비춰준다는 것은 전력을 아낄 뿐 아니라 눈의 피로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밝기로는 정상상 차지한 랜턴 제조사에서 '더 강한 빛' 대신 '적절한 빛'과 '수명'으로 발길을 돌린 건 매우 영민한 행보였다. '노(?)'의 중국어 발음으로 명명한 나옴은 그 이름처럼 페츨의 현명함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7월경 출시 예정. 175달러. petzl.com

모비코마 스마트 디바이스 필요한 크기만큼 조립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 모비코마는 한 변이 2.2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소형 모듈들을 초소형 결합 단자(마이크로 록)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콘셉트 스마트 디바이스다. SIM 카드가 장착된 핵심 모듈을 포함시켜 어떤 크기라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크기는 아니지만, 모비코마는 최소한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가 크기 문제로 던져졌던 아쉬움에서는 자유로워 보인다. 섬세한 타치가 필요한 작업이나 콘텐트 재생을 할 때엔 크게, 휴대하고 다니며 간편하게 꺼내 쓸 땐 작게, 또 운동을 할 때는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어 팔뚝이나 손목에 부착할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로세로 15x2미터의 어마어마한 스마트 태블릿까지 만들 수 있으며, 가장 작게는 단 두 조각으로 2.2x4.4센티미터의 크기도 가능하다. 핵심 모듈 두 칸만 있어도 통화와 와이파이도 가능하다. 물론 콘셉트 제품인 만큼 이 모든 건 이론적인 영역이자 디자이너의 희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지는 개발되어야 알 수 있겠다. 어쨌든 아이디어만으로도 여러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매일 연동하기 바쁜 스마트족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ikamil.ru



귀추가 주목되는 받아쓰기 앱

에어 디테이트(Air Dictate)는 시리를 이용해 아이폰 마이크에 하는 말을 아이폰과 연동된 맥에 문자로 써주는 앱이다. 사용자가 하는 말에 대답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해주는 시리를 기껏해야 받아쓰기 도구로 이용한다고? 관점에 따라선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iOS 모바일 기기와 PC를 연동하는 앱을 선보여온 아바트론의 행보를 보면, 에어 디테이트는 시리의 숨겨진 가치를 보여주는 첫 단추—옷을 벗기 위한 첫 단추를 풀었다는 뜻이다—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을 써서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게 고작이지만, 앞으로 시리를 이용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와 각종 디지털 기기에 확장할 수 있다는 비전의 실마리임에는 분명하다. 애플 공동 설립자 워즈니악이 말한 '컴퓨터의 미래, 시리를 앞당길 수 있는 에어 디테이트는 당연히 시리가 동작하는 아이폰 4S에서 사용 가능하다. 0.99달러. 앱 스토어. yooneoh@gmail.com 사진/PR

